

韓醫學의 世界化를 爲한 提言

李 鍾 一

一. 韓醫學의 世界化를 위한 提言

한의학의 세계화, 과학화 그리고 외국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중국의 한의학과 미국의 한의학의 현실과 제도를 알아야 하겠기에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 미국의 한의학 제도를 소개코저 한다.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300억달러 거대규모의 미국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세계한의학 시장 규모 1,000억달러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은 이미 85%를 중국이 선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방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상태여서 우수한 한의학의 위상을 제대로만 뿌리내리게 한다면 충분히 역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FDA가 침을 전문의료인 치료항목 2등급으로 공인했는가 하면, HMO(의료보험) 급여 내용중 한방급여를 포함한데 이어 산재보험에도 한방급여를 적용해주고 있다. 또한 34개 주자치법에 의한 한방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기구의 연구비 경우도 92년 200만달러에 불과하던 것을 현재 약 6,000만달러로 대폭 향상 정부의 관심도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

미국인이 한학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2월 닉슨대통령이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키위해 중국을 방문했을때 부터라고 볼 때 내년이면 30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한의학이란 이름보다는 침구학으로 불려지고 있을 정도다. 그 원인은 현재까지도 약초나 탕약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서양의학에 깊이 길들여진 미국인들이 약초나 탕약에 대해 그다지 깊은 호기심을 갖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의 미국시장 흐름이라면 가까운 미래에 한약재를 약품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규정도 제정될 것으로 볼 때 약재시장 공략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미국 시장에서의 한약재 우수성은 결국 과학적이고 객관화된 자료들이 뒷받침이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미국시장에서 침구학을 한의학으로 돌려놓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한약재와 한의학을 병행점목시킬 때 결국 미국도 한의학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한의계 인사들의 견해다.

미국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일단 미국 한의학 미래를 제대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미국에서의 한의학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발전 가능성은 엄청나게 크다”며 현재는 사회적으로도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한다

가장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올해 하버드대학에서 한의과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는 점이며, 캘리포니아 소재 카이로프라틱스대학에서도 한의학 대학을 유치하려 하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이전부터 하버드대학이나 Mayo Clinic과 같은 기관과, NIH 존스홉킨스대학이 한방치료영역인 침이나 한약제제에 대한 연구 등을 시행해 왔었다 또 일부 종합병원에서도 환자에게 침을 맞게 하는 등 미국내 침시술의 영역과 연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규모가 큰 기관에서 한방에 대한 유효한 연구결과 등을 발표하게 되면 그 여파가 양방에까지 급속도로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여파는 중국의 경우로 볼 때는 저급약재의 시장공략, 낙후된 시설때문에 후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한의학은 반대로 한차원 높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뜸의 직접구나 약침사용, 무리한 침의 삽입은 거의 금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치료의 분야가 한정돼 있다. 보통 통증치료나 감

기, 무기력증 등 가벼운 병들이 침구영역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암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일부 있지만 법적으로 한의사는 암에 따른 증상을 치료할 수 있으나 암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부 한의사들 중에는 당뇨병이나 에이즈 같은 병들을 치료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중병치료는 하지 않는다. 최근에 와서는 침에 의한 중독증 치료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마약이나 담배 등을 끊기 위해 침을 많이 찾고 있으며, 정신안정을 위해 침을 찾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침구치료비는 연간 5억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보험회사들까지 한의학이나 대체의학을 밀어주는 바람이 불어 일으키고 있어 급상승할 전망이다. 미국은 현재 약 10%의 의료보험회사들이 침 치료 청구배상을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보험회사들이 침술을 보험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정부운영)에서 한방치료를 인정하게 되면 미국시장에서의 한의학은 한층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학의 미국시장 공략은 우수한 한의계 인사들이 미국시장 진출과 함께 현지에서의 인력배출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미국의 경우는 두가지 시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는 미국 전역에서 인정을 받는 NCCAOM(미국침구사연합회)이고, 다른 하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만 허용되는 C.A면허다. 이들 시험에는 응시자 중 60%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내 NCCA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만명, C.A면허증 소지자는 약 8,000명에 이른다. 이들중 미국인이 5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한국인이 20%, 중국인이 20%, 기타 국가가 약 10%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는 면허나 자격증을 받으면 대부분 개원하고 있으며, 미국인이나 다른 국가 사람들은 물리치료, 카이로프라틱스 등 서양의학과 겸하고 있는 병원에 진출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한의학은 유대인과 중국인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한의사들의 전언이다.

유태인은 대형자본과 발빠른 움직임으로 미국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기틀을 세웠는데, 80년대 개설된 NCCAOM과 AACOM은 미국 한의사를 배출 감독하는 사설단체로 유태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기관은 비록 사설기관이지만 미국정부가 인정해주는 단체다.

중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NCCA와 AACOM은 물론 각 한의과 대학교수를 비롯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분야별로 골고루 참여, 그들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놓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한의사들은 약 2,000여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주로 캘리포니아에서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정도다.

한의학 한 관계자는 '미 FDA가 96년 3월 침치료를 실험적인 의학도구에서 일반 의학도구로 승격시켜 한의사들의 침구 치료가 많은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적용을 받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을 미뤄 볼 때 앞으로 미국은 한방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대대적인 활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며 미국시장에서 중국과의 한판대결은 우리나라 약재를 이용한 약물치료의 우수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뒷받침을 서두르는 것 밖에 없다고 토로 한다.

二. 현재 미국 한의사 시험 및 진출방안

1. 미국한의사자격증 시험개관

미국의 한의학 시험은 미 전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격시험인 NCCAOM이 있고 각 주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이 있다. 미국 50개 주에서 자체적으로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 주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NCCAOM 시험 없이 해당 주의 면허시험으로 한의사 면허를 취득 활동하고 있으며 그 외의 주에서는 침구, 한약시술을 위한 자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NCCAOM 시험과 해당주의 간단한 시험(예 - 주 법규시험, 상식적인 조항 등)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NCCAOM 시험이 널리 보편화되고 각 주마다 NCCAOM 시험을 널리 적절

한 형태로 이용을 하고 있어 앞으로 전 미국 나아가 세계적인 한의학자격 시험의 표준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미국에서 각 주는 거의 다른 국가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이외의 영어권 국가 즉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등 그 외 타국가에서 직,간접으로 NCCAOM 시험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기본적인 학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문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탁월하여 비록 한의학의 발상이 동양이라 하더라도 한의학의 세계적인 보급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2. 미국한의학의 역사와 현황

한의학이 미국에 소개된 것은 약 150여년 전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건설을 위하여 투입된 중국노동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으며, 그 후 샌프란시스코에 이들이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차츰 한약도 조제하고 침술을 통한 의료법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한의학이 본격적으로 미국에 알려지고 시술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닉슨대통령의 중공방문 이후부터였다. 그후 1973년 미국의 여러 주 가운데 처음으로 네바다주에서 주 정부 산하에 한의학 검정위원회가 구성되고, 한의학을 미국의 의료제도 내로 도입시키는 시초가 되었다. 1976년에는 미국에서 2번째로 캘리포니아주와 하와이주에서 의사 면허시험제도가 채택되고 시험이 실시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미국의 28개주에서 독자적으로 한의사 면허를 발급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약 10여개 주에서는 양의사 관리하에 침술시술을 허용하고 있고, 또한 약 18개 주에서는 침구교육을 받은 서양의사만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미국의 거의 전역에서 침구시술이 허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약의 경우도 어느 주에서나 비교적 자유롭게 다루어지고 있다

3. 교육제도

현재 미국의 각주는 점차로 한의사의 자격요건을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 최근 새로이 침구사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약6년 과정동안 4000시간의 교육이수 후 시험을 통과하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90년 5월 이후부터 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나 수료자를 받아들여 최소 2438시간 이상의 교육(4년~최단 3년)후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의과대학 협의회에서는 박사과정을 위한 기준설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적어도 2,3년 내에는 공식적인 기준이 설립될 전망으로서 현재 잠정 합의된 학위명칭은 ‘한의학 박사(Doctor of Colleges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또는 ‘침구학 박사(Doctor of Acupuncture)’ 이다. 현재 ‘한의과대학 협의회’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의 입학은 최소 대학2학년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일부학교에서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미국의 한의대들이 아직은 그 규모나 시설면에서 국내 한의대보다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계 - 중국계 - 유럽계교수 등 다양한 교수진과 엄격한 교육법 등으로 그 교육내용이나 질에 있어서는 결코 국내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입학생의 상당수가 이미 카이로프랙틱, 물리치료, 간호, 정골요법 등을 전공했거나 혹은 정규 서양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그 자질이 우수한 사람이 많은 편이다. 입학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운 국내 한의대에 비하면 이곳 한의대의 입학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지만, 국내와는 달리 졸업이 까다롭다. 더구나 실기시험까지 보는 엄격한 면허시험을 통과하기란 국내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한가지 안타까운 일은 현재 미국에서는 일반침구이론이나 기법과 명칭 등 전부 중국식 위주로 되어있고, 많은 중국서적들이 영어로 번역, 발간되고 있으며, 미국인들에 의해 저술된 서적들과 함께 침구사 시험 지정교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거의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TV나 언론에서는 종종 중국의 한의학을 소개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미국인들이 한의학을 보다 깊이 공부하고자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현재의 추

세가 계속될 경우 미국의 한의학은 완전히 중국식 및 이를 무단히 수정, 발전시켜가고 있는 미국의 양대산맥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한국 한의학은 그 주류에 흡수될 염려도 있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는 하버드, 메사추세츠, UCLA, USC 등의 일부 의과대학에서 밀도있게 AIDS 등 각종 불치병 치료연구에 한의학 연구진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진에 국내 한의학계 인사들은 한 사람도 속하지 않은 사실이 안타깝게 한다.

이곳 미국의 경우 특히 수많은 중국계 학자 및 미국계 학자들이 한의학의 새로운 면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불과 십수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한의학계 관련서적을 저술, 번역, 출판하고 있다.

소위 한의학의 종주국이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행한 한의학 관계 서적과 비교해 볼 때 한의학에서도 거대한 미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한의학계도 국내에서 서로의 영역다툼에서 벗어난 보다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때이며, 우리 한의학이 최고라는 자아도취에서 벗어나 서로가 자신의 연구결과나 강점을 발표하고 함께 연구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젊고 유능한 많은 한의학도들을 무한한 수요와 가능성이 있는 미국 등 해외에 진출시켜 우리의 한학을 보다 널리 전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동양의 전통적인 한의학에 대해 일반인들이 느끼는 신비와 매력, 학문연구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풍토, 양의에 비해 훨씬 저렴한 치료비, 탁월한 치료효과, 과학적인 한의연구의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한한 수요 등으로 인해 장래 한의학이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많은 진출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거대한 미국의 수많은 인구에 비할 때 현재의 한의사 숫자는 지극히 미약해서 장래 한의학이 전 미국으로 뻗어나가고 발전되어갈 때 엄청난 수요의 한의사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오리라 전망된다.

4. 한의사의 법적 지위와 미국내 분포

한의사들의 법적인 지위는 일차 진료자로서 양의사, 카이로닥터, 정골요법사 등과 동등한 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재활의학 및 통증클리닉 분야로도 진료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약 9,000여명의 한의사가 면허를 갖고 활동중에 있으며, 이 중에는 서양의사로서 다시 한의학을 공부하여 면허를 취득한 분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들 면허취득자의 숫자가 급격한 추세로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우리의 한의학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속에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의학은 비록 최신 지식으로 무장하였지만 오늘날의 수많은 난치병과 불치병에 무기력함이 노출되어 있으며, 반면에 미국에서의 한의학은 그 새롭고 우수한 면모를 발휘해가고 있다.

오묘한 동양의 철학에 기반을 둔 탁월한 치료효과, 양의와는 비교도 않되는 저렴한 치료비, 서양의학의 증상에 대한 비인간적인 치료와는 달리 지위나 경제적 안정성도 상승추세로서 가주의 경우 L.A 한인타운에서는 1회 침시술의 평균 30~40불, 미국인 지역은 평균 80~120불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60만 교포가 살고 있는 L.A에서 한방치료의 80%이상을 차지하는 한약의 경우 이보다 월등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5. 미국내 한의사의 명칭문제

우선 미국에서의 침구의학이라고 할 경우 이는 곧 동양의학 혹은 한의학을 의미하고 있으며, 침구전문대학이라 할 경우 반드시 침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한의대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대학들이 이러한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동양의대 혹은 한의대 라고 부르고 있으며 물론 그 교과과정은 한의학 전반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로얄한의대의 경우 그 교과과정이 한의학 이론 34학점, 침구 27학점, 본초 및 방제 32학점, 의술지압 및 기공 10학점, 기초과학 및 서양

의학 68학점, 임상실습 81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위는 한의학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의 타 한의과 대학들도 침구위원회 규정에 따라 교과과정은 한의학 전반을 다 다루고 있다

과거 한의대가 미국내에 설립된 초기 미 동부의 일부대학에서 침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상기와 같은 내용상의 오해를 야기한 경우도 있었으나 요즘에는 일반일들도 점차로 이 점을 이해해가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대학교육이 오직 침구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현재 한약재의 경우 식품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사용하는데 별도의 면허를 요구하지 않기에 이곳에서의 침구사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한의사와 동등한 교육과 면허시험을 거쳐 탄생되나 그 명칭은 대부분 침구사라 부르고 있으며, 현재로서 오직 화와이주와 네바다주에서만 한의사라 칭하고 있다. 한편 전 미주 한의침구협회(AAAOM)에서는 최근 '침구사(Acupuncture)' 라는 명칭을 '한의사(Oriental Medicine Doctor)' 로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

6. 미국내 자격증 종류

가. 캘리포니아주 면허

나. 네바다주 면허

다. NCCAOM 자격증 캘리포니아주 면허와 네바다주 면허는 주 자체에서 시험과 면허를 교부하는데 비하여 기타 32여개 주에서는 NCCAOM 자격증으로 한의사 면허를 대신한다.

7. 응시자격

가. 정규한의대 졸업자(NCCAOM에서 인정하는 정규 한의과대학 졸업자)

나. 한의학(침구학, 한약, 임상 실습 기타과목) 및 NCCAOM에서 요구하

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실적이 NCCAOM에서 인정하는 기관,
또는 자격자에게서 도제, 또는 사제로 교육, 임상을 받은자
다. 임상경력자 : 한의사(침구사) 및 의료인으로서 충분한 경력과 저명
인사와 전문인 보증과 일정기간 진료기록 및 실적 등이 NCCAOM
으로부터 인정받은 개인 자격자(단 2000년 12월까지만 유효함)

8. 응시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

- 가. 미국 비자를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나. 미국 영주권 자나 앞으로 이민 계획이 있는 사람
- 다. 앞으로 해외에서 한의사(침구사)로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

9. 시험응시언어 형태

시험은 영어, 중국어, 한국, 일본어 등으로 시행되며 가급적이면 영어로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자격증의 활용면에서 유리하다 영어가 아닌 타국언어로 본 자격증소지자에게는 따로 토플점수를 요구하는 수가 있으며 NCCAOM측에서도 향후 모든 시험형태를 영어시험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10. NCCAOM 응시 준비서류

- 가. 성적증명서(영문)
- 나. 졸업증명서(영문)
- 다. 응시원서(영문공증을 받아야 함)
- 라. 여권용 사진 4매(2매는 NCCAOM위원회에 송부)
- 마. 응시대금(외환은행으로 송금)

11. 미국한의사시험 준비교재 및 문제집

- 가. 침구학 기본교재

■ 韓醫學의 世界化를 爲한 提言

- 1) Chines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Foreign Language Press, Beijing, 1989.
- 2) Bensky, Dan & John O' Connor : Acupuncture, a Comprehensive Text, translated & edited from Shanghai College of Traditional Medicine, Eastland Press, Chicago, 1981.
- 3) Essentials of Chinese Acupuncture : Foreign Language Press, Beijing, 1980
- 4) Kaptchuk, Ted J., OMD : The Web That Has No Weaver, Congdon & Weed, NY, 1983.
- 5) Clean Needle Technique for Acupuncturists - A Manual, Third Edition, NCCAOM, Washington, DC, 1989. (본 교재는 내용이 계속 증보되어 2~3년마다 개정판이 나오고 있음)

나. 한약학 기본교재

- 1) Bensky, Dan & Andrew Gamble : Chinese Herbal Medicine : Materia Medica, Eastland Press, Seattle, 1992, revised 1993.
- 2) Bensky, Dan & Andrew Barolet : Chinese Herbal Medicine : Strategies and Formulas, Eastland Press, Seattle, 1990.

12. 전체시험안내

가. NCCAOM 시험과목 및 방법

- 1) 침구학(변증포함) - 200문항(5시간 시험)
- 2) 한약(변증포함) - 200문항(5시간 시험)
- 3) 침구실기(Point Location) - 25 혈위도상 취혈
- 4) CNT(소독법) - 필기 및 실기(NCCAOM에서 실시)

나. 시험방법

NCCAOM 시험은 30개 도시에서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10월 28일에 영어, 한국어, 중국어로 실시함.

13. 미국전역에서 NCCAOM자격증을 받은 한의사 총계

(2000년 봄)

지 역	계	지 역	계
• 메릴랜드	433명	• 네바다	30명
• 오레곤	344명	• 화와이	356명
• 몬타나	98명	• 사우스캐롤라이나	73명
• 루이지아나	3명	• 캘리포니아	4389명
• 멕시코	390명	• 로드아일랜드	79명
• 플로리다	810명	• 뉴저지	101명
• 아이오와	8명	• 메인	59명
• 버몬트	52명	• 워싱턴	274명
• 메사츄세츠	589명	• 필라델피아	310명
• 콜로라도	293명	• 워싱턴 D C	117명
• 위스콘신	165명	• 아칸소	38명
• 뉴욕	800명	• 아이오와	8명
• 노스캐롤라이나	67명	• 텍사스	363명
• 버지니아	31명	• 코네티컷	98명
• 미네소타	88명	• 일리노이	0명
• 뉴햄프셔	0명	• 아리조나	0명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 교수)